

『선박안전기술공단』출범에 즈음하여



존경하는 해양수산인 여러분!

변화와 개혁의 함성 속에 다사다난했던 병של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정해년을 맞이하였습니다.

지난 해 저희는 여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, R&D 분야에서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2중스테인레스축에 대한 방식시스템을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그 동안 보내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.

새해 시작과 더불어 지난 1월 3일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저희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칭변경이 이루어져 '선박안전기술공단'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, 이는 우리 조직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그리하여 올해 4월 4일 새로 출범되는 공단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초일류기술단체로 발돋움하고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며, 이를 위해 R&D 분야는 현장중심의 애로기술개발과 선박안전분야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연구, 양보다는 질적 향상의 효율적인 연구, 그리고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연구를 통한 기술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.

『선박안전기술공단』이라는 새 뜻을 올리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출항하는 저희에게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07. 1.

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 김성규